

# K팝과 만난 F1 ... 대중 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14일 오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머신들이 굉음을 내며 일제히 출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F1의 꽃 14일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을 앞두고 그리드 걸들이 드라이버의 입장을 기다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난 메르세데스 팬 벤츠 자동차의 엠블럼을 얼굴에 페인팅한 여성 관중이 세계 정상급 레이서들의 질주 장면을 보며 감탄하고 있다.



"와~ 빠르다" 한 어린이가 관중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F1 머신에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 ■ 세번째 영암 F1 성과와 과제

### 교통·숙박 여건 개선 ... 입장 수입 줄어 '비상'

스피드와 귀를 찢을 듯한 굉음으로 세계인의 눈과 가슴을 흔린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16만명의 관중을 불러모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3회 대회를 맞아 영암 서킷 인근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교통 흐름도 원활했고, 조직위원회의 대회 운영도 무리 없었다. 또 대폭 확충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은 관중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했다.

반면 입장권 가격이 대폭 할인하다보니, 입장 수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F1+케이팝(K-POP) 대중화 원년=이번 대회는 목포대교 등 영암 서킷 주변 교통 여건이 확충돼 교통 흐름이 원활했고, 싸이 공연 등 대형 공연으로 젊은 관중객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었다.

◇교통분산, 숙박·편의시설 보완=목포와 영암 등지의 숙박 시설 4만2000실도 때아닌 호황을 누렸고, 숙박·편의시설의 대폭 확충으로 관중들의 불편도 적었다. F1 드라이버들의 숙소인 호텔현대목포는 관중과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경주장으로 이동하는 드라이버를 만난 관중들은 호텔 로비에서 사인공세에 나섰고, 단란하게 팬과 사

를 1일 25대로 늘려 관중객 불편을 줄였다. 관 주도의 단체 관람객 모집에서 벗어나 F1 대중화로 가는 토대를 만든 것도 이번 대회의 큰 성과였다.

젊은 관중객들은 응원팀의 옷을 맞춰입거나, 드라이버의 이름을 적은 피켓을 들고 열띤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또 결승전 이후 마련된 싸이 공연 등 케이팝 공연을 찾은 젊은 팬들은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결승 당일 열린 싸이 공연은 서킷을 빠져 나가는 관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과거 결승이 끝난 뒤 한꺼번에 서킷 주요 진출입구로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지만 '싸이 효과'로 이번 대회에서는 관중객 퇴장 과정도 순조로웠다.

◇교통분산, 숙박·편의시설 보완=목포와 영암 등지의 숙박 시설 4만2000실도 때아닌 호황을 누렸고, 숙박·편의시설의 대폭 확충으로 관중들의 불편도 적었다. F1 드라이버들의 숙소인 호텔현대목포는 관중과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경주장으로 이동하는 드라이버를 만난 관중들은 호텔 로비에서 사인공세에 나섰고, 단란하게 팬과 사

진을 찍는 드라이버들도 많았다. 영산호 국민관광단지 내 한옥호텔 영산재는 외국인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고, 목포 하당 등지의 숙박시설도 평소보다 많은 투숙객을 맞이했다.

반면, 일부 숙박업소들이 기본요금의 2배 가량을 요구해 눈살을 찌푸리는 투숙객들도 많았다.

대폭 확충된 편의시설도 관중객들의 관람을 도왔다. 추가 설치된 물품대여소, ATM기기, 파고라와 벤치, 경주장 내 74동의 식음료 매장 등이 운영됐다. 해남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 캠핑장에도 1000여 명이 몰려 장관을 연출했다.

◇경기장 바깥도 흥겨움 가득=F1의 감동은 영암 서킷 밖에서도 계속됐다. 관중객을 위해 경주장 외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행사에도 관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연습경기가 열린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외국 10개 팀과 국내 9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페스티벌'이 열려 시민과 외국인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외국인들은 평화광장 일대를 거닐며 목포 밤바다의 낭만을 즐겼고, 인근 음식점과 주

점 등은 평소보다 40~70%가량 매출이 늘어 좋은 분위기를 지었다. 또 목포 필하모니 정기연주회(12일)에도 3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F1의 성공 개최를 축하했다.

◇입장 수입은 비상=이번 대회는 입장권 가격이 할인된 만큼, 관중객 수를 더욱 늘리고 경주장 내부 안내를 늘리는 등의 과제를 남겼다.

F1 대중화를 위해 입장권 평균 가격을 지난해 46만 원에서 올해 32만 원으로 내려 전체 입장 수입은 전년 대회보다 줄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 단체 구입분이 지난해보다 32억원 줄어드는 등 입장 수입은 전년 대회의 70%에 머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중화에는 성공했지만 입장 수입 증가에는 실패한 셈이다.

또 12일 오전 한 때 F1 콜센터가 연결되지 않고,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차장 진입에 애를 먹기도 했다. 경주장 좌석이 A~N석으로 나뉘져 있고, 곳곳에 주차장이 분산돼 있어 해매는 관중객도 많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관람객 눈길 사로잡은 그리드걸 ... 슈퍼스타 슈마허 팬사인회 인기

#### ■ 영암 F1 이모저모

○'F1의 꽃' 그리드걸(Grid Girl)들이 관중객들과 포토타임을 갖는 등 대회 흥행에 한 몫.

이번 대회에는 27명의 그리드걸이 영암 서킷에서 결승전 스타팅 도열, 드라이버 퍼레이드, 시상식 등의 행사를 지원했고 출전 선수의 국가명, 팀명, 선수 이름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해 큰 인기.

유니폼은 대회 첫째와 지난해는 스포티함과 세시미를 강조했지만 올해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원피스로 한국 대회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

#### '포사도' 3000여명 열띤 응원

○'포탈로 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KIC를 찾아 자원봉사와 응원을 펼쳐 F1 성공개최에 큰 보탬.

회원들은 대회기간 내내 메인 그랜드 스탠드 뒤편에 마련된 부스에서 F1 타투스티커, 페이스페인팅, 핸드가이드 북 등을 배포

해 관람객들의 사랑을 독차지.

결승전 당일 N구역 관람석에서 회원 3000여명이 3그룹으로 나뉘어 손가락 모양의 3색 풍선을 흔들고, 대형 태극기 응원을 펼치면서 장관을 연출.

#### 머신 운송 특수작전 방불

○이번 대회 운송업체인 한진은 지난달부터 머신을 포함해 부품, 장비 등 F1팀 장비와 대회 기간 쓰이는 전세기(B747기) 6대 분량의 장비를 운송트럭 100대와 인력 300명을 동원해 인천공항에서 영암으로 운송.

100억원에 달하는 F1 머신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무진동 차량과 같은 특수장비를 동원해 사전에 노면 체크를 마친 도로 경로로 이송했으며, 보험료만도 1000만원에 달해.

지난 12일에는 선수들에게 보여줄 식단 메뉴관이 세관 통과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예정된 시간보다 4시간 정도 늦게 도착해 발

을 동동.

#### 팬사인회 600명으로 제한

○13일 영암 서킷에서는 예선전이 열린 후 메인 그랜드 스탠드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버 팬사인회가 개최.

사인 대상자를 600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12개팀 24명의 드라이버가 모두 서킷에 나와 사인회에 참가하기로 하자 팬들은 좋아하는 드라이버를 찾아 일찍부터 장사진.

600번째 번호표를 받아 턱걸이로 팬사인회에 참가한 장우진군(광주 진월초 6년)은 "올해 은퇴하는 슈마허의 사인을 받기 위해 그의 소속 팀 모자까지 사가지고 갔는데 사인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페텔 등 7명의 사인을 받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위안.

#### 무화과 간식 큰 인기

○국내외 언론인들을 위해 마련된 미디어 센터 카페테리아에서 내놓은 무화과가 외국 언론인들에게 인기를 끄는 등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통한 한국 문화 홍보 효과를 거두기도.

카페테리아에서는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는데 무화과가 생산되지 않는 국가의 언론인들은 처음에는 생소해 하다가 달콤한 맛이 빠져 "맛있다(delicious)"를 연발.

영암 서킷 메인그랜드스탠드와 패독을 잇는 한옥형태의 다리 또한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해외 언론인과 대회 관계자들의 기념 촬영 장소로 각광.

####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 논란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소개하는 공식 자료에 동해 대신, 일본해(Sea of Japan)라는 표기가 나와 논란.

국제자동차연맹(FIA)이 배포한 대회 전망(race preview) 자료에 "7일 일본 대회를 마친 팀들이 일본해를 건너 한국의 항구 도시 목포에 집결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이 뒤늦게 발견돼 말썽.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 순간을 영원히 14일 오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을 찾은 관중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머신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